

##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음주 후 문제행동과의 관련성

윤미은\*·오현경\*\*·김형태\*\*·진 경\*\*·현보람\*\*\*·천성수\*\*\*\*†

\*삼육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삼육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삼육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 Cor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 Psychosocial Stress and Problem Behavior after Consuming Alcohol among College Students

Mi-Eun Yun\*·Hyun-Kyung Oh\*\*·Hyung-Tae Kim\*\*·Kyoung Jin\*\*·

Bo-Ram Hyun\*\*\*·Sung-Soo Chun\*\*\*\*†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Sahmyook University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Sahmyoo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 Welfare, Sahmyook University

\*\*\*\*Department of Health Management, Sahmyook University

####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cor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 psychosocial stress and drinking behavior after consuming alcohol among college students.

**Methods:** This study surveyed by questionnaire 440 students who consumed alcohol regularly from 36 colleges around the country in 2014.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program SPSS 21.

**Results:**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problem behavior after drinking and psychosocial stress had significant influence with each path coefficient  $-0.178$ (CR=  $-3.408$ ,  $p<0.001$ ) and  $-0.294$ (CR=  $-6.195$ ,  $p<0.001$ ). Also, the effects of psychosocial stress on problem behavior after drinking had significant influence with path coefficient  $-0.141$ (CR=  $-2.858$ ,  $p<0.05$ ). Social support had significant influence( $p<0.001$ ) on problem behavior after drinking through psychosocial stress, serving as a mediator variable, and social support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problem behavior after drinking through psychosocial stress.

**Conclusions:** Problem behavior after consuming alcohol held strong relevance in social support and psychosocial stress.

접수일 : 2016년 9월 17일, 수정일 : 2016년 11월 21일, 채택일 : 2016년 12월 1일

교신저자 : 천성수(01795,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

Tel: 02-3399-1668 Fax: 02-3399-1640 E-mail: chss97@syu.ac.kr

**Key words:** Problem Behavior after Consuming Alcohol, Social Support, Psychosocial Stress

## I. 서론

음주는 개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과도한 음주는 60가지 이상의 질병과 손상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다양한 피해를 발생시킨다(WHO, 2009). 세계보건기구의 알코올소비실태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순수알코올소비량이 9.8리터로 세계평균 6.2리터보다 많다(WHO, 2014).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월간 음주율이 남자는 74.4%, 여자는 46.4%로 나타났고, 고위험음주를 또한 남자는 20.7%, 여자는 6.6%로 조사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 2015)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진료 받은 인원은 12만 7천명이었고 그중 남성은 11만 명, 여성은 1만 7천명이었다. 우리나라 사망자의 8.9%는 음주와 관련된 질환 및 사고로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통계청, 2014). 음주로 인한 질병, 가정 문제, 생산성 감소, 사고 등으로 인해 한 해 동안 약 23조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비용이 발생하고 있다(정영호, 2009).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기부터 음주문제가 심각해지지만, 특히 합법적인 음주 시작연령인 대학생 시기에 폭음을 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음주에 대한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하여 음주 후 많은 문제 행동에 노출되고 있다(천성수 등, 2001). 2013년 통계청 조사에 연령별 고위험음주율은 19-29세가 16%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월간음주자 비율은 92.2%이며(천성수 등, 2003), 문제음주자 비율이 특이하게 높다(천성수 등, 2003; 김광기 등, 2011). 특히, 성인초기에 해당되는 대학생은 독특한 음주 행태를 나타내는데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두드러지게 과음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동일한 연령대의 성인에 비해 많은 음주량과 더 잦은 음주빈도를 보

인다(이한숙, 2004). 최근에는 여자대학생의 음주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2012년 대한보건협회가 전국 대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음주실태 조사에서 알코올사용장애 비율이 남학생은 8.2%였던 반면, 여학생은 28.3%로 여학생의 고위험 음주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학생의 경우 1회 음주량이 소주 7~9잔인 경우가 14.7%, 소주 10잔 이상이 12.2%였다. 이 결과는 국민건강통계(2011)의 19세 이상 성인여성 1회 음주량 소주 7~9잔 6.6%, 소주 10잔 이상 6.1%에 비해 거의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대학생의 과도한 음주는 알코올중독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손상, 의도하지 않은 성격형, 필름이 끊기는 현상, 기물파손, 싸움, 지각, 결석과 학업 저하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경제적 곤란, 친구와의 다툼, 폭력, 성관련 문제 및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다(문인수, 2008).

대학생의 대다수가 원하지 않지만 타의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음주경험이 많은데(천성수 등, 2001), 억지로 술을 마시는 경우는 주로 선배들의 친목 모임에서 경험하게 된다(김승수와 정슬기, 2009). 천성수 등(2001)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의 음주문제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사회적지지 요인이 15.5%, 심리적 요인이 17.2%, 사회문화적 요인이 12.3%, 가족음주력 요인이 12.0%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스트레스는 신체적, 심리적인 긴장과 함께 이에 대한 불쾌한 신체적, 심리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음주, 흡연, 약물 및 카페인 섭취 등으로 이어져 결근, 생산성 저하, 대인관계 기피 등과 같은 부정적 행동을 유발시키게 된다(Baker, 1985). 또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인간의 갈등상태를 외부로의 위협이나 반응능력 수준을 넘어서거나, 개인의 자원에 위협을 가하는 심리적이면서 사회적인 속

성을 띤다(장세진, 1993). 사회적 지지는 유병률과 사망률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을 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전을 고려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Uchino, 2006). Elder 등(2000)은 사회적지지의 결여에서 오는 불건강행위들로서 음주 및 흡연 등을 손꼽았다.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관련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하도록 돕고,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또한 좌절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강화한다(Compas 등, 2001).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감소와 완충역할을 하므로, 대학생들의 음주행태에도 영향을 미친다(호산나, 2004).

점점 심각해지는 대학생들의 음주와 음주 후 관련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일은 국민보건을 위해 매우 시급히 필요한 과제이다. 특히 사회적지지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대학생들의 음주 후 문제행동의 관련성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지지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대학생의 음주 후 관련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특히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단면연구로서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음주 후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 2.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의 2, 3, 4년제 대학교 36 곳을 임의 선정 후 재학생 700명을 임의표집 방법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

를 위하여 설문지의 IRB허가를 사전에 획득하였다(SYUIRB2014-141). 2014년 9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연구자가 대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대학생에게 설문을 직접 조사하는 방법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설문 수집에 동의한 대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하였으며 자기기입식 설문방식으로 연구자에 의해 수거되었다. 700개의 설문지 중 응답이 성실한 응답자 중 연간음주자로 분류된 440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3. 연구도구

### 1) 사회적지지

박지원(1985)이 개발하고 호산나(2004)가 재구성한 사회적지지 척도를 이용하였다. 정서적지지(9문항), 정보적지지(5문항), 물질적지지(3문항) 3개의 하위변인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여 1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은 것으로 구분하였다.

### 2)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평가 측정도구는 장세진(1993)의 PWI(psychologic well-being index)를 기초로 개발된 18문항의 단축형 PWI-SF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사람과 정상인을 구별하기 위한 진단학적인 목적보다 정상인의 스트레스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약간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3-2-1-0의 점수를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구분하였다.

### 3) 음주 후 문제행동

신행우(1998)가 개발한 음주 후의 문제행동에

대한 척도로 사회적 기능의 손상, 행동상의 문제,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척도로 '전혀 그런 적 없다'를 1점, '거의 항상 그렇다'를 5점으로 하여 2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음주 후 문제 행동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3, AMOS 2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 사회적지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음주 후 문제행동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Amos를 이용한 구조방정식 가설모형 및 경로분석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466)

특성		남학생	여학생
학년	1-2학년	134(48.6)	142(51.4)
	3-4학년	52(27.4)	138(72.6)
학교지역	서울	36(39.6)	55(60.4)
	경기	112(45.9)	132(54.1)
	기타	38(29.0)	93(71.0)
종교	있음	51(32.5)	106(67.5)
	없음	135(43.7)	174(56.3)

단위: 명(%)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음주후 문제행동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음주후 문제행동의 차이는 <표 2>와 같다. 3-4학년은 1-2학년 보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 Ⅲ.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면, 남학생은 1-2학년이 48.6%, 3-4학년이 27.4%였고, 여학생은 1-2학년이 51.4%, 3-4학년은 72.6%였다. 학교가 소재한 지역으로는 남학생의 경우 서울이 39.6%, 경기지역이 45.9%, 그리고 기타지역이 29.0%였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서울지역이 60.4%, 경기지역이 54.1%, 그리고 기타지역이 71.0%였다. 종교의 경우는 남학생 중 종교가 있는 학생이 32.5%인 반면, 여학생의 67.5%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높았고,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기타지역은 서울, 경기 지역 보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았고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았고,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음주 후 문제행동이 높았고,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2> 일반적특성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음주후 문제행동의 차이

특성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음주후 문제행동	
		M±SD	t/F	M±SD	t/F	M±SD	t/F
학년	1-2학년	20.8±8.5	-2.08*	3.6±.64	0.527	7.3±12.3	1.191
	3-4학년	22.6±8.9		3.5±.64		6.0±9.9	
학교지역	서울	21.8±9.4	3.168*	3.6±.51	2.08	7.8±10.6	1.818
	경기	20.6±8.5		3.5±.65		7.3±11.8	
	기타	23.1±8.5		3.4±.69		5.1±11.3	
종교	있음	21.3±9.1	-0.653	3.5±.63	-1.476	7.4±12.4	1.606
	없음	21.9±8.1		3.6±.65		5.7±9.3	
성별	남학생	19.2±8.7	-4.766***	3.5±.63	-0.834	8.5±13.1	2.471*
	여학생	23.1±8.3		3.5±.64		5.6±10.1	

\*p<0.05, \*\*p<0.01, \*\*\*p<0.001

**3. 사회적지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음주 후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

사회적지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음주 후 문제행동 간 상관관계는 <표 3>와 같다.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으로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정서적지지를 분석하였고, 음주 후 문제행동의 하위요인으로 사회적 문제, 행동상 문제, 가족 및 대인관계 문제를 분석하였다. 사회적지지 중 정보적지지와 정서

적지지는 음주 후 문제행동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한(p<0.01, p<0.05)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물질적지지는 음주 후 문제행동의 하위요인에 아무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사회적지지의 모든 하위 요인들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역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음주 후 문제행동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한(p<0.01) 양의 상관을 보였다.

<표 3> 사회적지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음주 후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사회적 지지							
정보적지지(1)	1						
물질적지지(2)	0.597**	1					
정서적지지(3)	0.807**	0.631**	1				
사회심리적 스트레스(4)	-0.031	0.031	-0.033	1			
음주 후 문제행동							
사회적문제(5)	-0.097*	-0.041	-0.122**	0.609**	1		
행동상문제(6)	-0.147**	-0.025	-0.147**	0.499**	0.778**	1	
가족및대인관계문제(7)	-0.121**	-0.033	-0.101*	0.591**	0.800**	0.895**	1

\*p<0.05, \*\*p<0.01, \*\*\*p<0.001

#### 4. 가설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의 가설모형은 <표 4>과 같이  $\chi^2$ 은 26.660( $p < 0.01$ ), 자유도는 1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frac{\chi^2}{df}$  값은 2.22로 나타나,  $2 \leq \frac{\chi^2}{df} \leq 5$ 이면 안정된 모델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여 안정된 모델임이

판명되었다. 또한 증분적합지수인 NFI, TLI, CFI가 0.90이상 이라는 기준으로 보았을 때, NFI=0.987, TLI=0.988, CFI=0.993으로 기준을 만족시켰다. 절대적합지수인 RMSEA는 0.1이하는 보통, 0.08이상은 양호, 0.05 이하면 좋음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RMSEA=0.051로 절대적합지수가 양호의 기준에 속하였다.

<표 4> 가설모형의 적합도

	$\chi^2$	df	$\chi^2/df$	NFI	TLI	CFI	RMSEA
채택기준			2-5	$\geq 0.9$	$\geq 0.9$	$\geq 0.9$	$\leq 0.1$
가설모형	26.660**	12	2.221	0.987	0.988	0.993	0.051

\* $p < 0.05$ , \*\* $p < 0.01$ , \*\*\* $p < 0.001$

#### 5. 경로계수

사회적지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음주 후 문제행동 간의 경로계수는 <표 5>와 같다. 사회적지지 가 음주 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는 -0.178(CR= -3.408,  $p < 0.001$ )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지지 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 역시 -0.294(CR= -6.195,  $p < 0.001$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음주 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는 -0.141(CR= -2.858,  $p < 0.05$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경로계수

	$\beta$	B	S.E	C.R	p
사회적지지 → 음주 후 문제행동	-0.178	-0.157	0.046	-3.408	0.000
사회적지지 →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0.294	-3.318	0.536	-6.195	0.000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 음주 후 문제행동	-0.141	-0.011	0.004	-2.858	0.004

#### 6. 모형의 효과분석

사회적지지 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매개를 통해 음주 후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는 <표 6>과 같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부

트스트래핑법(Bootstrapping)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지지 가 매개변인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통해 음주 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 $p < 0.001$ )한 것으로 나타났다.

## &lt;표 6&gt; 효과분석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사회적지지 → 음주 후 문제행동	-0.178***	0.041*	-0.136***
사회적지지 →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0.294***		-0.294***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 음주 후 문제행동		-0.141**	-0.141**

\*p&lt;0.05, \*\*p&lt;0.01, \*\*\*p&lt;0.001

## IV. 고찰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그리고 음주 후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사회적지지의 하위 요인 중 정보적지지와 정서적지지 모두 음주 후 문제행동의 하위 변인 모두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정보적지지와 정서적지지가 많을수록 음주 후 문제행동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높은 청소년이 사회적지지가 낮은 청소년에 비해 음주행위가 낮은 결과(변석수와 류진아, 2013)와 사회적 지지와 문제음주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어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문제음주 수준이 높았던 연구(박여진 2013)와 같은 경향으로 사회적 지지는 음주행위 또는 문제음주수준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음주행위와 문제음주 예방을 위해 사회적 지지의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김연숙(1991)의 연구에서도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적게 받을수록 부정적인 정서를 형성하기 쉽고 충분한 지지를 받은 경우 음주문제가 적다고 보고했다. 대학생의 음주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박종순, 2000)에서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문제음주의 정도가 낮았다. 활동성이 강한 대학생시기이지만 음주로 대부분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음주문화적 환경(천성수, 2012) 하에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의 완화 및 해소에 기여하게 되므로 문제음주와 음주관련문제를 예방하

는데 도움이 된다(천성수, 2007). 대학생에서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는 대부분의 연령층에서도 문제음주를 예방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데, 노인의 사회적 지지를 연구한 문정희(2012)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높은 노인이 음주관련 문제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알코올중독군이 알코올 중독 잠재군과 정상군에 비해 사회적지지가 낮은 결과(박현주, 2006)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박정임과 최윤정(2007)의 연구에서는 문제음주를 개선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교육·사례관리와 인지행동치료 기간에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는 문제음주자가 지역사회 알코올서비스를 더 오래 이용하여 사회적지지가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음주 후 문제행동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될수록 음주 후 문제행동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한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음주를 할 경향이 크며, 음주는 스트레스를 잊기 위한 회피적 반응(Cooper, 1992)으로, 이는 문제음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한다. 즉, 스트레스가 인간의 신체 및 심리에 영향을 주어 적대감, 불안, 우울 등의 정서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정서적 건강이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서경현과 김성민, 2009). 음주자가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알코올의존 비율이 높아진다(윤명숙과 조혜정, 2007).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제음주 연구에

서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문제음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음주를 한다는 것이다(손애리, 2010). 직무스트레스와 음주행위 연구에서 스트레스는 음주 빈도와 음주량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어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자주 술을 마시고, 한번에 마시는 술의 양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신원우, 2010), 성인의 문제음주에도 스트레스는 중요한 변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와 음주 후 문제행동에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음주 후 문제행동에 직접효과를 보임과 동시에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완충하는 역할을 하므로 음주 후 문제행동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적절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기능을 한다(장세진, 2001). 사회적 지지를 직장 동료나 상사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적절히 받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덜 경험한다(Lin과 Ensel, 1989). 반면 분노, 회피, 무력감 같은 부적응적인 대처 양식은 문제해결을 방해하고 주변의 가능한 사회적 지지의 효과적 사용을 막기 때문에 알코올 사용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김의숙, 2002). 스트레스는 음주문제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음주동기에 의해 매개되는 간접적 영향이 크다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박경민과 이민규, 2005). 즉 스트레스는 음주동기에 영향을 미치며, 그런 영향을 받은 음주동기가 음주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신원우와 유채영, 2007).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좀 더 다양한 매개효과를 고려하지 못한 점이며, 아울러 사회적 지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방식이 응답자의 주관적 자기기입법에 의존하여 수집되었기 때문에 응답편의가 내포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이라 하겠다.

## V. 결론

사회적지지가 음주 후 문제행동의 완화에 영향을 미치며, 반면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음주 후 문제행동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완충적 작용을 하여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음주 후 문제행동에 대한 영향을 완화시킨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들의 음주 후 문제행동을 완화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음주문제와 음주 후 관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에 대한 고려와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음주 후 문제행동은 사회적 지지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크므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원망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1. 국민건강보험. 알코올성 정신장애 남성 60대 여성 40대 진료 환자 많아. 2015. Available from <http://www.nhis.or.kr/bbs7/boards/B0039/13072>.
2. 국민건강통계. 2013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 통계. 보건복지부 2013.
3. 김광기, 제갈정, 박민수, 이재국. 대학생 음주문제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효능성 평가.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11;28(5)131-143.
4. 김승수, 정슬기. 대학생 음주실태와 문제음주 변화 추이, 2006년과 2008년 비교. 한국알코올학회지 2009;10(2):75-88.
5. 김연숙. 일 도시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정신 건강과의 관계 : 고등학교 남학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1.
6. 김의숙.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음주행위 및 음주 관련 문제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2.



7. 문인수. 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우울이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8.
8. 문정희. 노인의 문제음주에 관한 생태학적 요인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12.
9. 박경민, 이민규. 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및 음주동기가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2005;10(3):277-293.
10. 박여진. 중년 여성의 사회적지지, 우울과 문제음주 간의 관련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13.
11. 박정임, 최윤정. 문제음주자의 지역사회 알코올 서비스 이용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007;23:1-33.
12. 박종순. 대학생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보건학회지 2000;26(4):393-413.
13. 박현주. 알코올중독 심각도에 따른 우울, 불안 및 사회적 지지.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6.
14. 변석수, 류진아.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음주행위에 대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 도농복합지역 중심으로. 한국놀이치료학회지 2013;16(4):301-317.
15. 서경현, 김성민.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문제음주의 관계에서의 자아탄력성의 역할. 한국알코올과학회지 2009;10(2):21-34.
16. 손애리.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스트레스, 우울 및 문제음주 간의 관련성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2010;27:61-79.
17. 신원우. 심리적 취약성이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음주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010;21(3):81-105.
18. 신원우, 유채영. 음주동기 유형이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 일반 성인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007;35:363-387.
19. 윤명숙, 조혜정. 지역사회 노인의 음주행위, 문제음주 실태와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007;26:254-287.
20. 이한숙. 문제음주 대학생의 음주경험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4.
21. 장세진. 스트레스 건강통계자료수집 및 측정의 표준화 방안. 대한예방의학회편. 계축문화사 1993; 121-159.
22. 장세진.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직무 스트레스 현황 및 실태. 보건연구정보센터, 2001;9-36.
23. 장세진.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 도구의 개발 및 표준화 연구: 2차년도.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4
24. 정영호. 질병의사회경제적비용과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보건복지포럼 2009;156:50-61.
25. 통계청. 2013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대전:통계청. 2014. Available from:[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2/index.board?bmode=read&bSeq=&aSeq=330181&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2/index.board?bmode=read&bSeq=&aSeq=330181&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26. 천성수, 손애리, 송창호, 이주열, 김선경. 대학생 폭음에 의한 폐해 및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 : 전국 60개 대학교 조사결과. 한국알코올과학회지 2003;4(2):119-135.
27. 천성수, 이주열, 이용표, 박종순. 대학사회의 절주홍보·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알코올학회 2001;2(1):67-113.
28. 천성수, 손애리, 조정애, 이상숙. 조해리의 마음의 창과 대학생 음주문제의 관련성. 한국알코올과학회지 2007;8(1): 39-48.
29. 천성수. 한국인에서의 음주의 사회적 의미. 당뇨병학회지 2012;13(2): 57-60.
30. 호산나. 대학생의 문제음주와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및 보호 요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4.
31. Baker DB. The study of stress at work. *Annual*

- Review of Public Health* 1985;6:367-381.
32. Compas BE, Connor-Smith JK, Saltzman H, Thomsen AH, Wadsworth ME.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roblems, progress, and potential in theory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2001; 127(1):87-127.
33. Cooper ML. Stress and Alcohol us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coping, and alcohol expectanci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992;101: 139-152.
34. Elder JP, Campbell NR, Litrownik AJ, Ayala GX, Slymen DJ, Parra-Medina D, Lovato CY. Predictors of cigarette and alcohol susceptibility and use among Hispanic migrant adolescents. *Preventive Medicine* 2000;31(2):115-123.
35. Lin L, Ensel WM. Life stress and health: stressors and resourc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89;54:382-399.
36. Uchino BN. Social Support and Health: A Review of Physiological Processes Potentially Underlying Links to Disease Outcome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2006;29(4):377-387.
37. World Health Organization. Global health risks: mortality and burden of disease attributable to selected major risks.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9.
38. World Health Organization. Global status report on alcohol health.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4.